





[ 공동구호에서 ]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

◎ 온천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

## 중심고리를 둘어쥐고 전투적으로 내밀 때

온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모든 사업이 그려 하지만 씨 뿌리기준비도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내밀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온천군들이 새로운 종자 채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물보증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알곡증수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것은 경험적이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이곳 군의 일군들은 사업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새로 운 종자처리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한 사실이 그 실태이다.

얼마전 군인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씨 뿌리기를 주제로 농법의 요구대로 적기에 하여 벼를 잘 키워내기 위한 문제를 모색해 왔었을 때였다. 모판자리만들기와 바람막이비자리기, 부식토와 종자처리, 복토준비 등 씨 뿌리기준비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

로인해 일군들은 밖수십km의 물

길가시기와 와닥락 끝난데 이

어 석치지구의 수십리 물길 확

장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낸 사

실을 놓고 보자.

이 방법은 크게 품을 들이

지 않고 할 수 있다. 그전에는

시약이 있어야 종자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학자들이 연구한 군만 있으면 그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 …

새로운 종자처리방법의 우월

성에 대하여 알게 된 그들은

저마다 호응해나섰다. 이날 진

행된 보여주기 사업의 실효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회

행으로 일군들은 그들의 말을 이렇게

이어받았다.

『공동사업에 제시된 것처럼

오늘의 현실은 새로운 영농방

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이기

요구합니다. …』

그리고는 지난해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농장들을 대

체로 부침땅의 지력이 높아드

니, 물건들이 다른 농장들보

다 좋다느니, 거름을 많이 냈

기때문이라니 하면서 제나

름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그

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회

행으로 일군들은 그들의 말을 이렇게

이어받았다.

모든 종자처리방법을 받아들이

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군들은

제나름에 농장으로 대체로

적용하고 있다. 일군들은





#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

# 야심적인 핵공법자의 정체

위대한 당의 향도 따라 천만 군민의 무한대 한 정신력을 총독발하여 강성대국건설리상을 현실로 꽂아우며 휘황찬란한 레일을 향하여 질풀같이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은 국제사회계의 끝없는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인민의 복리를 첫 자리에 놓고 인민들이 모든 복리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요구밑에 최근 조선은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조선정부는 만수대거리 살림집을 본보기로 하여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힘으로 내밀고 있으며 도처에 근로자들을 위한 휴양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수영관, 도서관, 체육관을 비롯한 대중봉사시설들을 일떠세우고 있다.

평양의 거리들에 편의봉사시설들을 새로 지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씨름경기장을 비롯한 전국적인 체육경기들을 조직하여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문학문화부문에서 새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로씨아人身 『웨제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충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충돌격전의 진두에 서제시며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 계신다.

그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온갖 난관을 뛰어 경제건설을 다그치면서 과학기술과 문화분

야에서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가고 있다.

미국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은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땅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 절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 세우기 위해 조선인민은 세계가 본격적인 상승단계에 들어섰다.

메히코신문 『우니나드 나씨 오날』은 조선인민은

김정일평도자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정치사상강국, 군사강

국으로 온 세상에 위용펼치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경제강

국의 목표까지 실현하여 강성

대국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려

는 신심에 넘쳐있다고 전하였다.

단마르크신문 『아바이언』

는 조선에서의 힘찬 경제건설

투쟁은 제국주의들의 그 어

면 제재나 압력도 사회주의 강

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조선

인민의 물질의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증명해 주고있다.

최근 조선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경제건설 성과들은

제52호를 발행하였다.

불평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회천발전소건

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을

모시였다.

불평전은 『회천의 기적』이

는 소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3월 회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고 다

물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의도

를 밟고 지난 기간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멀친

조선인민들은 각지의 남녀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회

천으로 달려갔다.

회천발전소는 조선에서 최근

20여년간 건설된 발전소들중

에서 규모와 공사량이 가장 방

대한 건설대상이다.

회천발전소건설은 실제로 경이

경이롭지 않을수 없다. 3

년이상 경력으로 도로건설을

12일만에 완공하였으며 보통

몇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작업

량을 단 5개월 사이에 해제

졌다.

지난해 9월 회천발전소

이스라엘의 침략에 단호히 맞설 립장 표명

베이비드통령 미셸 쿠메이인이

8일 한 신문파의 회견에서 이스

라엘의 있는 침략에 단호

히 맞설 립장을 표명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의 베바논에 대

한 침략기도를 더욱 로প으로

드러내보이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유례복고주의정권은 베바

논이 더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에 베바논은 나

라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있으

며 전세 인민이 떨쳐나온 군대와 함께 적들의 침략을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천 속도』로 내달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

의 대문을 열어 풍화를 지폐주

에 하는 경제적 발전을

경쟁력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미사이에 무역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주요원인은 인민

제한률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정착촌』 확장책 등을 배격

털장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가

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국이 당장

그 결정을 취소하며 중동평화

새로 건설하기로 한것은 중동

평화문제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제 속 되는 확장책 등을 배격

이는 방법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공평한 경제를 차지하는 것

을 공평한 경제를 차지하는 것

</